

18세 김주형, KPGA 스타 탄생

군산CC 오픈 우승...최연소·최단 기간 쾌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에 김주형(18) 돌풍이 거세다.

투어 2부투어에서 3승, 필리핀 투어에서 2승을 올린 그는 17세이던 지난해 아시아프로골프투어 파나소닉 오픈에서 프로 첫 승을 차지한 데 이어 코리아투어까지 제패했다.

김주형은 12일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 리드-레이크 코스(파71)에서 열린 KPGA 군산CC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언더파 69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6언더파 268타로 우승했다.

1타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주형은 2번 홀(파5) 3온에 실패한 바람에 파세이브에 실패, 미국 교포 한승수(35)에게 공동선두를 허용하는 등 출발은 불안했다.

김민규(19)를 2타차로 따돌린 김주형은 코리아투어에 두 번 출전 만에 정상에 오르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다.

8번 홀까지 타수를 줄이지 못한 그는 9번 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홀 2m에 붙여 이날 첫 버디를 잡았다.

데뷔전이던 1주 전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에서 준우승을 했던 그는 이번 우승으로 상금 1억원을 보태 상금랭킹 1위(1억5000만원),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공동1위, 신인왕 포인트 1위로 나섰다.

10번 홀(파4)에서 칩샷 버디로 기세를 올린 김주형은 12번(파4), 13번 홀(파3) 연속 버디로 추격한 한승수에 또 한 번 공동 선두를 내줬다.

김주형은 이날 우승으로 코리아투어 프로 선수 최연소 우승(18세 21일)과 KPGA 입회 후 최단기간 우승(3개월 17일) 신기록을 세웠다.

김주형과 한승수의 매치플레이어처럼 진행되던 승부는 15번 홀(파4)에서 순식간에 갈렸다.

지금까지 코리아투어 프로선수 최연소 우승 기록은 2011년 NH농협 오픈 챔피언 이상희(28)가 가진 19세 6개월 10일이었다. KPGA 입회 후 최단기간 우승 기록은 김경태(34)가 2008년 세운 4개월 3일이었다.

김주형은 2.4m 버디 퍼트 집어넣었고, 한승수는 110m를 남기고 친 웨지샷이 그린을 넘어간 데 이어 2m 퍼퍼트마저 놓쳤다.

1998년 한국오픈에서 17세 2개월 20일의 나이로 우승한 김대섭(38)이 코리아투어 최연소 우승 기록 보유자지만, 그는 당시 고교생 아마추어 신분이었다.

2타차 선두가 된 김주형은 이어진 16번 홀(파4)에서 티샷을 물에 빠뜨려 위기에 몰렸지만, 별타를 받고 친 세 번째 샷을 홀 4.5m 옆에 떨어진 뒤 퍼퍼트를 집어넣는 집중력을 과시했다.

2개 대회는 세계랭킹 300위 이내 선수 자격으로 코리아투어에 출전했던 그는 앞으로 이번 시즌 남은 대회에 이어 2021~2023년 코리아투어 시드를 손에 넣었다.

한승수는 17번 홀(파3) 버디로 다시 1타차로 따라붙었으나 18번 홀(파4)에서 티샷을 해저드에 집어넣으며 2타를 잃어 2위마저 놓쳤다.

“골프 노마드” 김주형은 15세에 태국 프로 골프투어에 데뷔한 뒤 아시아프로골프

이날 코스레코드 타이인 9언더파 62타를 몰아친 김민규가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1, 2위가 모두 10대 선수에 돌아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로 골프투어에 데뷔한 뒤 아시아프로골프

이븐파 71타를 친 한승수는 3위(13언더파 271타)로 대회를 마쳤다.



12일 전북 군산CC에서 열린 KPGA 군산CC 오픈에서 우승한 김주형이 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은 생애 첫 앨버트로스

이정은은 지난 11일 부산 기장군 스톤게이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총상금 10억원)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앨버트로스 1개와 버디 4개,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쳤다.

이정은은 특히 이날 5번 홀(파5)에서 앨버트로스를 달성했다.

기본 타수보다 3타 적게 치는 앨버트로스는 이날 이정은이 KLPGA 투어 통산 7번째일 정도로 좀처럼 나오기 어려운 기록이다.

이정은은 이날 468m인 5번 홀에서 약 170m를 남기고 4번 아이언으로 시도한 두 번째 샷으로 그대로 돌아왔다.

KLPGA 투어의 샷 트래커 시스템에는 남은 거리가 190m로 나왔으나 이정은은 170m 정도 됐다고 밝혔다.

경기를 마친 뒤 이정은은 “오늘 샷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버디 기회도 많았다”며 “퍼트가 많이 안 떨어져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평생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앨버트로스를 처음 해서 너무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은은 “앞바람에 170m 거리여서 유틸리티를 잡으면 (그런까지) 여유가 있고, 아이언으로는 100%로 풀샷을 해야 그린에 보낼 수 있는 딱딱한 상황이었다”며 “유틸리티로 치면 그린을 넘겨 잘해야 버디라고 판단해서 공격적으로 시도한 샷이 행운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정은은 12일 열린 2라운드에서 5타를 잃는 부진 속에 1언더파로 컷 탈락했다. /연합뉴스



고민...섭섭...행복... '끝내기'는 해피했네

KIA '대타 끝내기' 3인 3심



KIA 윌리엄스 감독의 머리를 아프게 한 '끝내기' 뒤에 '미레'의 눈물과 웃음이 있었다.

KIA는 지난 10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즌 7차전에서 연장 11회말 1사 1·2루에서 나온 최원준의 안타로 9-8 승리를 거뒀다.

'난적' 키움 상대로 끝내기쇼를 펼친 KIA는 분위기를 이어 11일에는 황대인의 멀티포 등을 앞세워 8-3 승리를 만들었다.

에이스 양현종의 난조로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던 경기에서 나온 끝내기 승리는 KIA에 1승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이 승리 뒤에는 행복, 섭섭함, 그리고 고뇌가 공존했다.

연장 11회말 윌리엄스 감독의 머리가 분주하게 돌아갔다.

선두타자 최형우의 우전안타가 나왔고, 타석에는 앞선 3회 투런을 날렸던 나지완이 있었다.

1점이면 경기가 끝나는 만큼 대주자와 대타를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상황. 윌리엄스 감독에게는 카드 세 장이 남아 있었다.

'고졸 루키' 홍중표, 좋은 주력에 최근 좋은 타격감을 보여준 최원준, '한방' 있는 황대인이 윌리엄스 감독이 쥔 카드였다.

일단 윌리엄스 감독은 대주자를 선택

하지 않고 나지완의 타석을 지켜봤다. 나지완의 삼진 뒤 유민상의 볼넷이 나오자 비로소 벤치가 움직였다. 벤치의 선택은 2루 대주자 홍중표, 박찬호의 대타 최원준이었다.

최원준은 박승주의 3구째 직구를 중견수 앞으로 보내 믿음에 화답했고, 홍중표 역시 점진 수비를 하던 키움 강건 외야를 이기고 홈에 먼저 들어와 임무를 완수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닝에 생각할 게 많았다. 원아웃이었다면 대주자 결정이 편했을 것인데 최형우를 일단 2루로 보낸다는 생각을 했다”며 “다행히 2루로 쉽게 갈 수 있어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다. 최원준은 최근에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고 대타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최원준을 대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택이 적중했지만 윌리엄스 감독에게는 고민의 지점이 있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박찬호가 타격감이 좋았던 상황이라서 대타 결정이 쉽지 않았다. 경기가 그렇다.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섭섭하고 대신 감독이 두통을 가지고 가면 된다”고 웃었다.

그의 말대로 고민 속에 선택한 최원준은 끝내기 주인공이 돼 행복찬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했다. 박찬호는 ‘섭섭함’ 속에서도 같이 웃었다. 박찬호는 “경기가 끝난 후 감독님께 신들린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이어 “사실 대타 내실 풀렸다. 송지



지난 1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연장 11회말 1사 1, 2루에서 KIA 6번 대타 최원준이 끝내기 안타를 치고 팀의 9-8 승리를 이끈 뒤 동료들의 물세례를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만 코치님이란 ‘변화구 노리고 들어가자’ 이야기하고 타석에 들어서려는데 부르셨다. 처음에는 내 이름을 부른 줄도 몰랐다”며 “오라고 하셔서 뭔가 지시하는 줄 알았는데 대타라고 하시고, 원준이가 나오고 있었다”고 상황을 돌아봤다.

감이 좋았던 박찬호에게는 아쉬웠던 순간이었다. 박찬호는 “서운하기는 했다. 최근에 감이 좋아서 자신 있었다”면서도 “원준이가

경기 끝났으니까 그걸로 됐다. 감독님의 용병술이 적중했다”고 웃었다.

올 시즌 내야 한 축으로 자리한 박찬호지만 기습 줄이며 한 타석 한 타석을 기다리던 날이 더 많던 선수다. 그래서 후배 최원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2016년 8월 2일 한화전, 당시 백업 신세였던 박찬호도 생애 첫 끝내기 안타를 기록한 뒤 눈물을 보인 적이 있다.

박찬호는 “원준이한테는 크고 소중한 한 타석이다. 원준이 마음 잘 안다. 울컥하는 것도 다 이해한다. 그것 보면서 다 행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감독님께서 대타 냈다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다(웃음). 프로 세계는 냉정하다. 나도 언제 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자리 지키고 좋은 모습 보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키움전 오늘 개최

‘월요일 경기’가 열린다. 1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가 비로 취소됐다.

이 경기는 13일 오후 6시 30분 ‘월요일 경기’로 진행된다.

코로나 19로 개막이 늦어진 올 시즌에는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휴서기(7-8월)에는 더블헤더가 열리지 않지만, 월요일 경기는 유지된다.

한편 KIA는 올 시즌 4경기를 비로 치르지 못하면서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55경기만 치렀다. /김여울 기자 wool@

‘기록의 사나이’ 메시

라리가 첫 ‘20-20 클럽’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 역대 첫 ‘20-20 클럽’ (20골-20도움)에 가입하며 ‘기록의 사나이’로 우뚝 섰다.

메시는 12일 바야돌리드와 2019-2020 프리메라리가 36라운드 원정에서 전반 15분 터진 아르투로 비달의 결승골을 도우며 팀의 1-0 승리에 힘을 보탰다.

이번 도움으로 메시는 22골-20도움을 기록, 당당히 ‘20-20 클럽’ 가입에 성공했다.

역대 프리메라리가에서 한 시즌 ‘20-20 클럽’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메시가 처음이다.

유럽 5대 빅리그를 통틀어서도 2002-200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에서 24골-20도움을 기록한 티에리 앙리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연합뉴스